
숫자와 세로선의

기록을 통해 던지는 질문

A Question through an
Archive of the Numbers and
the Vertical Lines

현준혁 Hyun Junhyuk

홍익대학교 석사과정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3년 7월 8일

심사일 2023년 7월 11-25일

계재확정일 2023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3

Reviewed Date 11-25 July 2023

Accepted Date 1 August 2023

요약

ISBN은 상업 출판에서 도서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한 요소이다. 그런데 어째서 ‘아름다운 책’ 응모에 ISBN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일까? 공모라는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의 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질문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ISBN이 없는 책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일까? 책의 생산 유통 생태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ISBN과 바코드를 아카이브 하는 이 프로젝트는 ISBN이라는 숫자 체계, 그리고 채로산으로 이루어진 바코드에 담긴 출판 생태계에 던지는 질문이다. ISBN과 바코드를 수집, 아카이브 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에 담긴 조형성 너머 그리고 그것에 담긴 일련의 정보 너머에서 던지는 출판 생태계 사슬의 모순과 출판에 관한 궁극적 질문이다. 독립출판,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그 진정한 자율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Abstract

The ISBN is a crucial ele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books in commercial publishing. However, why is an ISBN a mandatory requirement for the “Beautiful Book” contest? Even when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the contest system and its process, this question remains. Does the absence of an ISBN mean a book cannot be considered beautiful in Korea? What significance does a book hold outside the realm of the boo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cosystem? This project of archiving ISBNs and barcodes raises questions about the ISBN numerical system and the publishing ecosystem encapsulated in the vertical lines of the barcode.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rchiving ISBNs and barcodes, this project questions the contradictions within the publishing ecosystem, beyond the formality of the ISBN and its series of information. It delves into the ultimate questions about independent publishing—what does it truly mean to be independent, and where does this genuine autonomy stem from?



[그림 1] 《동네서점 2022 겨울호》, 주식회사 동네서점



[그림 2] 《동네서점 2022 겨울호》, 주식회사 동네서점



[그림 3] 《주디스 현의 외로운 열정》, 을유문화사



[그림 4] 《별의 시간》, 을유문화사



[그림 5] (원)《TAPAS》나카가와 히데코 지음, 포스트페이퍼
(오)《첫 번째 팝 아트 시대》헬 포스터 지음, 위크룸 프레스



[그림 6] (원)《포스트모던의 조건》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민음사
(오)《오culo 9》미디어버스



[그림 7] (원)《절렬》위크룸 프레스 (오)《CRACKER》박광수 작가, 미디어버스

이번 프로젝트는 ‘숫자와 세로선의 기록을 통해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 작업이다. 개인적 관심으로 시작한 ‘바코드’와 ‘ISBN’에 대한 수집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가공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전체적 아카이브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 대상 선정 작업이 있었고, 이에 따른 1차 수집을 진행했다. 1차로 대상을 수집했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궁금증을 모아서 1차 질문으로 추리고, 이 1차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구하기 위해 리서치와 스터디 그리고 인터뷰 과정을 진행했다. 수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질문은 수집 대상과 당장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모았다.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한 후에 자연스럽게 다음 수집 대상을 정할 수 있었다. 2차 수집 대상 선정 후 1차에서와 같은 ‘수집-질문-리서치&스터디-인터뷰’ 과정을 반복했다. 두 번에 걸쳐 수집한 것들을 편집, 가공해서 두 권의 책을 만들었고 이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갈무리하는 책이 따로 한 권 제작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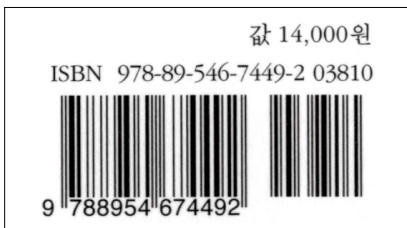
1차와 2차의 조금 더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 대상은 관심 있었던 여러 소재 중에서 ISBN과 바코드로 정했다. 책이나 잡지를 디자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ISBN과 바코드를 어떻게 활용해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나름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했다.[그림 1, 2, 3, 4]

ISBN과 바코드는 철저히 기능을 목적하는 요소이다. ISBN은 책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해 각각의 책에 부여하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이고 바코드는 이 번호를 기계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 같은 것이다. 결국 디자이너나 독자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인데 ‘시스템’을 위해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는 요소가 디자인 재료가 적극 활용되는 사례를 모아보기로 했다. 시작은 ‘레퍼런스 모으기’처럼 가벼운 수집이었다. 우선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사례를 수집했다.[그림 5, 6, 7]

그런데 막상 수집을 시작해 보니 두 가지 이유에서 ‘수집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겠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이유는 ISBN과 바코드의 활용에 디자이너의 적극적 개입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ISBN과 바코드를 넣는 보편적 방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ISBN을 신청할 때 제공 받거나 무료 바코드 생성 사이트에서 ISBN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바코드 형식이 그것일 것이다.[그림 8, 9] 이런 보편적 형식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어느 정도로 변형되어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 이유는 수집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 서재에 있는 책들과



[그림 8] 보편적 형식의 ISBN과 바코드



[그림 9] 보편적 형식의 ISBN과 바코드

■ 필수사항

- ✓ ISBN 등록 도서
- ✓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 도서 (※ 공모 신청일 기준)
- ✓ 2022년 이후 출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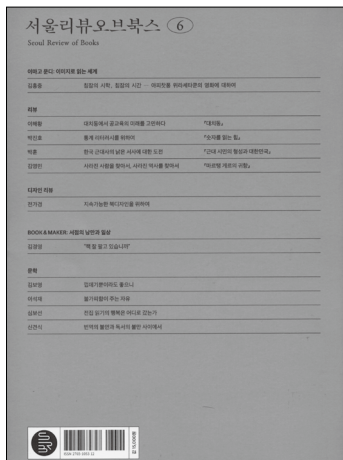
* 출간년도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라면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재신청 가능

- ✓ 공모 신청(출품)한 모든 도서는 실물 제출 必 (종당 각 1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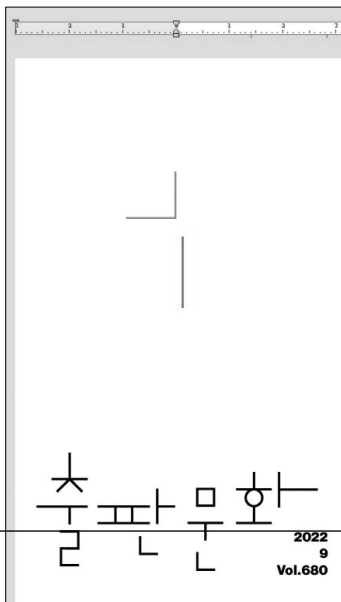
[그림 10] '2023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 요강 일부

같은 범위로 설정하는 건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도서 중 ‘디자인’ 관련 도서”라는 식의 기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범위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의 ISBN과 바코드를 모으기로 했다. ‘아름다운 책’ 수상작이라면 ISBN과 바코드의 적극적 변용이 없더라도 북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적 요소로서 잘 활용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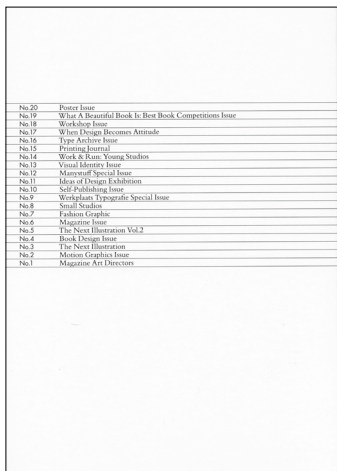
그래서 우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을 리스트로 만들고 ISBN을 수집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4권의 ISBN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권의 ISBN을 수집했다. 모아놓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은 모두 ISBN이 있었다. 이유는 공모 접수 요강에 ISBN 등록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그림 10] 우선 ‘ISBN이 필수 조건’인 이유가 궁금했고,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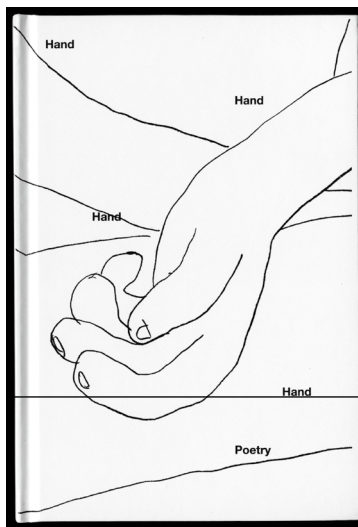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리뷰오브북스 6호》, 서울리뷰오브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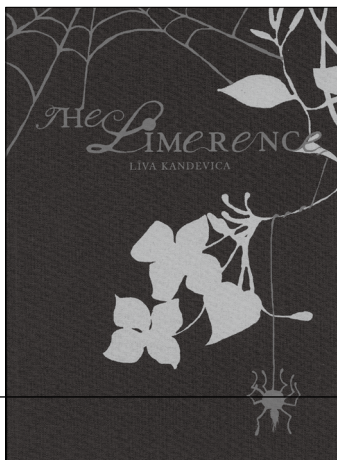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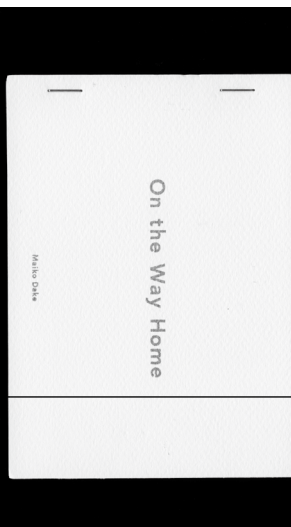
[그림 12] 《출판문화(2022년 9월호) Vol.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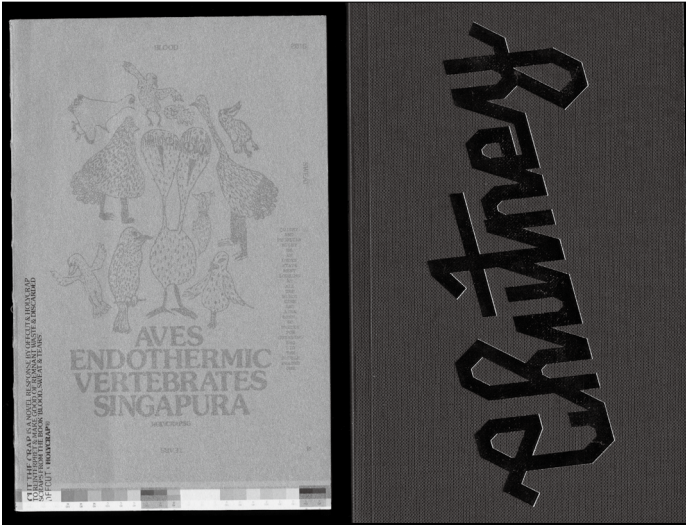
[그림 13] 《Graphic: 19 What A Beautiful Is: Best Book Competition Issue》, 프로파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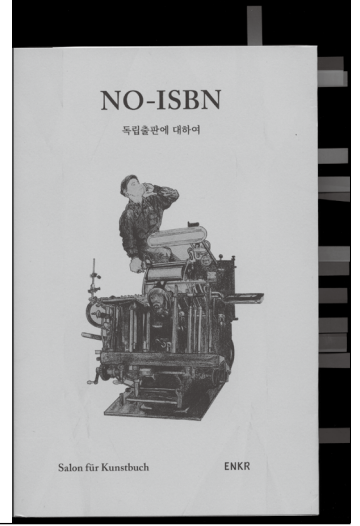
[그림 14] (원)《Hand, Hand, Hand, Hand, Poetry》NOWWE(홍소이) 지음 (오)《On the Way Home》, Maiko Dake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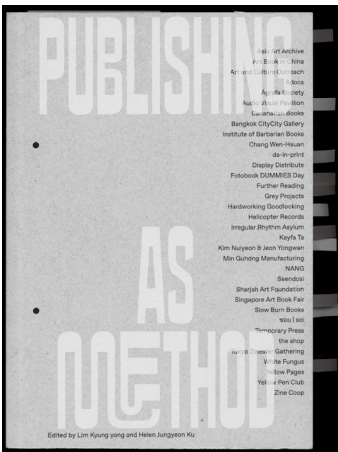
[그림 15] 《The Limerence》Liva Kandeveca 지음, Colorama Books



[그림 16] (왼)《CUT THE CRAP》Holycrap (오)《Chutney #3 direct》, Osman Bari, Annual or thereabouts



[그림 17] 《No-ISBN 독립출판에 대하여》, 엔커(ENKR)



[그림 18] 《방법으로서의 출판: 아시아에서 함께하기의 방식들》, 미디어버스



[그림 19] 《지금 여기 독립출판》, 프로파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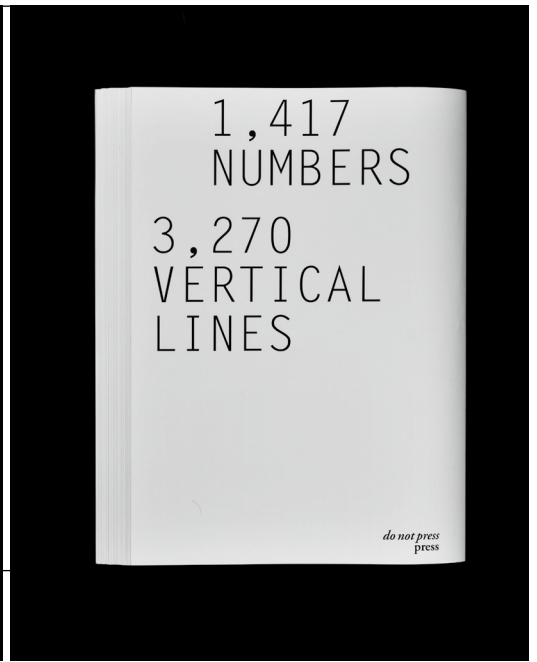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전 출품에 ISBN이 필수인 이유는?
- 북디자인 관점에서 ISBN의 유무가 미감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 ISBN이 없는 책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제대로 된 질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책과 논문, 그리고 인터뷰 세 가지 방식으로 리서치와 스터디를 진행했다. 전가경이 ‘서울리뷰오브북스’에 기고한 <지속 가능한 북디자인을 위하여>라는 칼럼[그림 11]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대한 의견>이라는 김동신 디자이너의 ‘출판문화’ 기고 칼럼[그림 12], 그리고 그래픽 잡지 19호 ‘Best Book Design Competition’[그림 13]을 참고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앞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 대상은 출판사 편집자, 상업출판 혹은 인하우스 북디자이너, ISBN과 바코드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용할 수 있는 자체출판을 하는 디자이너,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주최 측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이 있다. 인터뷰를 위한 주요 질문을 아주 간략히 추려보자면,

- 디자이너로서 ISBN과 바코드는 어떤 의미인지?
- 북디자인 요소로서 ISBN과 바코드를 다룰 때 특별한 방식이 있는지?
-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전에 ISBN 등록이 필수조건인 이유는?
- ‘시스템’ 밖의 책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2차 수집 대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

2차 수집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이라는 가제를 달고, 1차 수집(‘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의 ISBN과 바코드)에 대한 카운터파트로서 ISBN이 없는 책 중 ‘아름다운 책’을 수집하기로 했다. ISBN이 있는 책과 없는 책을 같은 기준으로 수집했을 때, 둘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집 방법은 국내외 소규모 책방 운영자에게 연락해, 주관적 판단으로 ‘ISBN이 없는 책’ 중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책’ 추천을 요청했다. 이때 절판 도서를 추천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7개 서점에서 35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다.[그림 14, 15, 16] 그리고, 추가 요청에 응해준 몇 군데 서점의 추천 책을 기다리고 있다. 2차



[그림 20] 《1,417 / 3,270》의 앞표지, do not press press

[그림 21] 《1,417 / 3,270》의 뒷표지, do not press press

수집을 통해 1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생겨난 질문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책의 생태계에서 ISBN이 없는 도서는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이들을 ‘독립출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 ‘독립출판’이란 무엇인지?
- 과거의 ‘독립출판’과 지금의 ‘독립출판’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 시스템 밖의 도서(혹은 경계 밖의 도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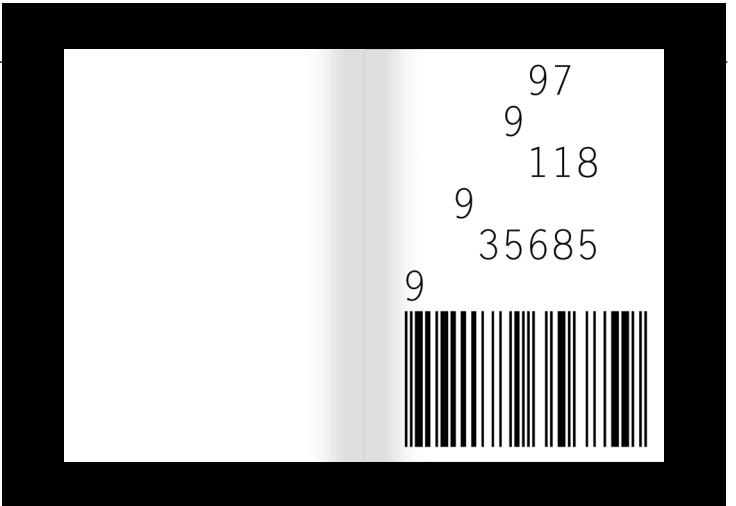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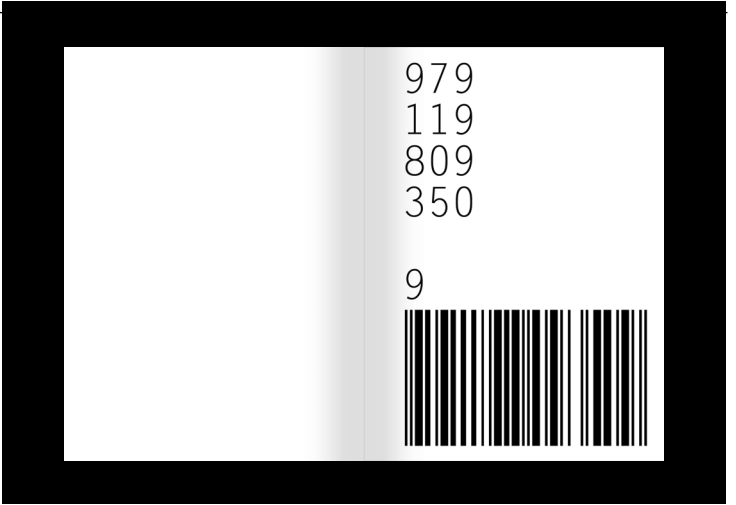
2차 수집을 통해 생긴 주된 질문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독립출판’, 자주출판, 예술출판, 소규모출판이라 부르는 것들과, 책의 생태계에서 시스템 밖의 영역에 존재하는 책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2차 리서치와 스터디, 인터뷰를 진행했다. <NO-ISBN 독립출판에 대하여>[그림 17], <방법으로서의 출판>[그림 18], <지금 여기 독립출판>[그림 19]과 같은 책을 참고했다. 그리고 관련 논문을 찾아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역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 대상은 ‘추천에 참여한 서점 운영자’, ‘ISBN이 없는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책의 제작자나 디자이너, ‘독립출판’ 흐름에 대해 설명해 줄 연구자로 선정하고 일부 진행했으며,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몇 가지 질문을 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 ‘독립출판’은 여전히 유효한 용어인지?
- 여전히 ‘독립출판’을 ‘상업출판’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
- ‘상업출판’의 영역에 속하는 보이는 책을 ISBN 등록 없이 출판한 이유는?
- 그리고 이러한 책을 ‘독립출판’이라 부르는 이유는?
- 2009년이 ‘독립출판’ 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것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번의 수집을 통해 모은 것들을 편집, 카공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북디자인 요소로서의 ISBN과 바코드의 활용’이나 ‘독립출판, 혹은 시스템 밖의 출판’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선부른 답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다음 작업을 기약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프로젝트가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차 수집, 2차 수집한 것을 각각의 책으로 만들어 둘 사이의 모순적 관계성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제 생각, 인터뷰, 선정된 도서들을 포함한 나머지 내용을 모아 따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총 세 권의 책이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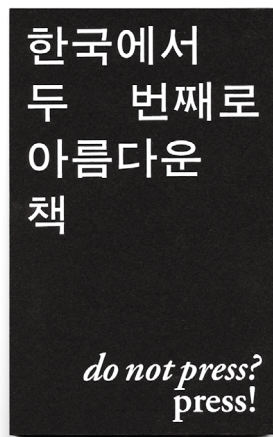
각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1417 / 3270>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의 ISBN과 바코드를 수집한 출판물이다. 370×510의 판형으로, 인디고 옴셋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이다.[그림 20, 21] ISBN과 바코드가 북디자인에서는(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작게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크게 보여주하고자 인디고 옴셋으로 인쇄가능한 가장 큰 크기로 판형을 잡았다. 본문은 ‘기능적 타이포그래피’로서의 ISBN과 바코드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실험 같은 컨셉으로 작업했다. ISBN은 어떻게 배치가 되더라도 순서대로만 읽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문의 숫자 레이아웃을 페이지마다 다르게 했다. 바코드는 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모든 페이지에서 선의 위치와 굵기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요소라 판단해, 놓이는 위치를 고정해 두었다.[그림 22, 23, 2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 중에는 ISBN이 없는 것도 있어 해당 책은 빈 페이지로 남겨두었다. 제목과 뒤표지의 1,417과 3,270은 각각 책에 들어간 총 ISBN 숫자의 개수와 바코드 세로선의 개수이다. 더불어 해당 책은 ISBN과 바코드를 모은 책, 즉 출판 시스템



[그림 22-24] <1,417 / 3,270>의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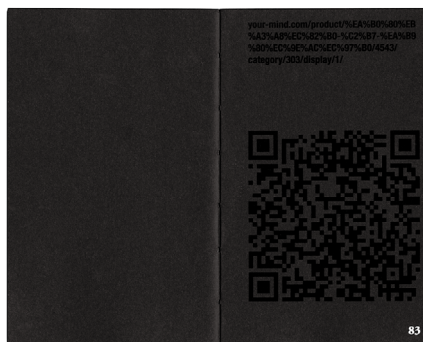
[그림 25]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앞표지, do not press press



[그림 26]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뒷표지, do not press press



[그림 27]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그림 28]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안에 존재하는 책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ISBN과 바코드가 없는 '독립출판'의 형태로 제작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은 ISBN과 바코드가 없는 '아름다운' 책을 수집해 만든 책이다. 이 책은 112×180으로 앞선 책(〈1,415 / 3,270〉)과의 대조를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판형을 선택했다. 검정 색지에 검은색으로 인쇄해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은 책의 생태계에서 분명 존재는 하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ISBN이 없는 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1,417 /



[그림 29]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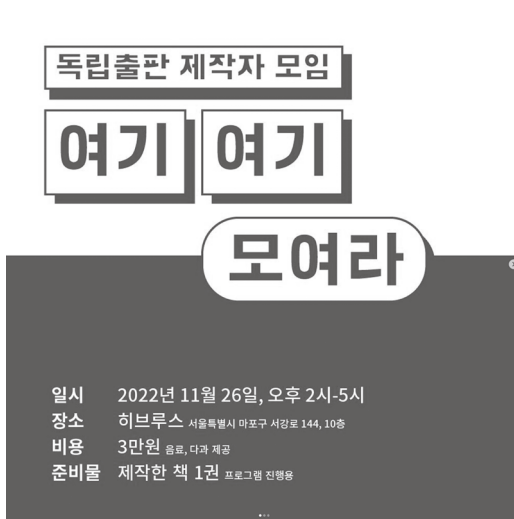
3,270)의 본문 레이아웃에서 위쪽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ISBN 정보를, 아래쪽에는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바코드를 두었듯이, 여기서도 위쪽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해당 책의 온라인 스토어 url 주소를, 아래쪽에는 시스템으로 읽을 수 있는 QR코드를 두어 두 책이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그림 27, 28, 29] 이 책은 ISBN과 바코드가 없는 ‘독립출판’, 즉 출판 시스템 밖의 영역에 존재하는 책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ISBN을 발급받아 시스템 ‘안’에 있는 책으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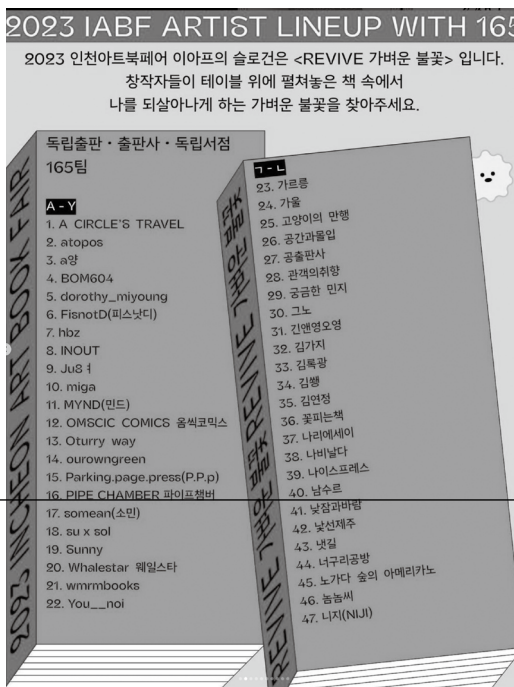
[그림 30]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그림 32]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그림 31]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그림 33]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앞서 밝혔듯 두 책은 서로 교차 혹은 얹혀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ISBN과 바코드를 모은 책은 ISBN과 바코드가 없는 ‘독립출판’의 형태로 만들고, ISBN과 바코드가 없는 책을 모은 것은 출판등록을 해 ISBN과 바코드를 표지에 얹어 출판했다. 이를 위해 ‘do not press press’라는 이름으로 출판등록을 마쳤다.

또 표지와 본문에서 두 책은 서로를 차용하고 있다. ISBN과 바코드를 모은 책은 ISBN이 없는 독립출판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디자인을 표지로 차용하고 있다. 반대로 ISBN이 없는 책을 모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은 ISBN을 발급받아 출판하기 때문에 ISBN과 바코드를 수집한 <1,417 / 3,270>의 본문 디자인을 같은 형식으로 표지에 사용하고 있다

—— 정리하자면, ISBN과 바코드를 모아 만든 출판물과 ‘ISBN과 바코드가 없는 책’을 모아 제작한 출판물을 형식과 시스템, 그리고 의미적으로 교차하고 얹히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책은 디자인적 미감은 통일성을 갖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스템’과 ‘책의 생태계’에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순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제 작업에 대한 반론일 수도 있고, 어찌면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책은 이 아카이브 작업의 모든 과정과 두 책에 실린 책의 정보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리서치와 스터디, 그리고 인터뷰에 관한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앞선 두 책이 나름의 이유로 비규격 판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세 번째 책은 상업출판에서 가장 보편적 판형 중 하나인 ‘신국판’ 크기로 제작할 계획이다. 내용을 살짝 가늠할 수 있게 인터뷰나 리서치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말을 몇 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진짜’ 독립출판 서점이라는 게 있다면 당장 가보고 싶다.
- 아름다운 게 뭔지 잘 모른다. 나다. 나는 못생긴 표지가 좋다.
- 지금 ‘독립출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 그냥 하는 거지.
- ‘독립출판’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그 영역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ISBN과 바코드에 대한 수집에서 시작해 책의 아름다움, 책의 생태계, 독립출판 같은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었다.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던져진 화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너무 고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언제적 독립출판인데’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은, 여전히 많은 북페어나 서점,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독립출판이라는 말을 관습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 32, 33, 34, 35]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출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내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더 이상 형식과 내용으로 독립출판을 구분지을 수 없다면 차라리 ISBN이 있는 책과 없는 책으로 나누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앞으로 ‘do not press press’에서 만들 책들도 기획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아카이브 작업에서 던진 질문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㉞

그림 차례

- [그림 1] 《동네서점 2022 겨울호》, 주식회사 동네서점
- [그림 2] 《동네서점 2022 겨울호》, 주식회사 동네서점
- [그림 3] 《주디스 현의 외로운 열정》, 을유문화사
- [그림 4] 《별의 시간》, 을유문화사
- [그림 5] (원)《TAPAS》 나카가와 히데코 지음, 포스트페이퍼
(오)《첫 번째 팝 아트 시대》 헬 포스터 지음, 워크룸 프레스
- [그림 6] (원)《포스트모던의 조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민음사 (오)《오쿨로 9》 미디어버스
- [그림 7] (원)《절멸》 워크룸 프레스 (오)《CRACKER》 박광수
작가, 미디어버스
- [그림 8] 보편적 형식의 ISBN과 바코드
- [그림 9] 보편적 형식의 ISBN과 바코드
- [그림 10] ‘2023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 요강 일부
- [그림 11] 《서울리뷰오브북스 6호》, 서울리뷰오브북스
- [그림 12] 《출판문화(2022년 9월호) Vol 680》
- [그림 13] 《Graphic: 19 What A Beautiful Is: Best Book
Competition Issue》, 프로파간다
- [그림 14] (원)《Hand, Hand, Hand, Hand, Poetry》

- NOWWE(홍소이) 지음 (오)《On the Way Home》, Maiko Dake 지음
- [그림 15] 《The Limerence》 Liva Kandevica 지음.
Colorama Books
 - [그림 16] (원)《CUT THE CRAP》 Holycrap (오)《Chutney #3 direct》, Osman Bari, Annual or thereabouts
 - [그림 17] 《No-ISBN 독립출판에 대하여, 엔커(ENKR)
 - [그림 18] 《방법으로서의 출판: 아시아에서 함께 하기의 방식들》, 미디어버스
 - [그림 19] 《지금 여기 독립출판》, 프로파간다
 - [그림 20] 《1,417 / 3,270》의 앞표지, do not press press
 - [그림 21] 《1,417 / 3,270》의 뒷표지, do not press press
 - [그림 22] 《1,417 / 3,270》의 본문
 - [그림 23] 《1,417 / 3,270》의 본문
 - [그림 24] 《1,417 / 3,270》의 본문
 - [그림 25]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앞표지, do not press press
 - [그림 26]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뒷표지, do not press press
 - [그림 27]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 [그림 28]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 [그림 29] 《한국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책》의 본문
 - [그림 30]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 [그림 31]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 [그림 32]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 [그림 33] ‘독립출판’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